

“공연하며 바라본 광주는 상처로 가득... 무거운 마음으로 노래했죠”

2024 꿈을 쏘다 <3> 뮤지컬 '광주' 출연 황수빈 씨

“작년 뮤지컬 ‘광주’에 합격한 뒤 연습이 없던 날이면 팬스레 총장으로, 금남로 등을 돌아다녔어요. 광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5·18민주화운동을 조정화한 공연을 준비하며 다시 바라본 광주에는 상처들이 가득했죠. 그때부터 더 무거운 마음으로 노래했던 것 같아요”

작년 18:1의 경쟁을 뚫고 열연했던 창작뮤지컬 ‘광주’ 무대를 회상하며 황수빈(30) 배우가 꺼낸 말이다. 그를 10여 년 전 처음 대학로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황수빈은 에너지, 생기가 가득한 전성 배우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5·18 민주항쟁의 아픔을 극화한 ‘광주’ 출연 경험을 물을 때만큼은 사투 진지했다.

최근 전남대 공과대학에서 황 씨를 만났다. 그는 2019년 데뷔, 연기 경력 5년 차 배우다. 현재 뮤지컬 ‘마리 퀴리’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시계공장 직공 레흐 노바크 역을 맡고 있다. 이외 상무지구에서 펼쳐진 ‘슬기로운 신혼생활’의 김찬수 역을 비롯해 광주문화재단의 뮤지컬 ‘광주’에 출연했다.

전남대 생물공학과를 졸업한 뒤 연극계에 입문한 독특한 이력도 눈길을 끈다. 군복무 시절 우연히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을 보며 현연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났고 곧장 극단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공학계에서 극예술 분야로 커리어를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당시 둘째 누나에

데뷔 5년차...공대생 이색 경력 눈길 ‘광주’서 재수생 하동수 역 맡아 열연 3월 광주예술의전당 ‘마리퀴리’ 출연

게 고민을 털어냈는데, ‘인생을 책임지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조언을 듣고 본격적으로 용기 낼 수 있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물론 가족의 지지를 받기까지 쉽지 않았다. 처음 1년 여는 부모님께 “나 연극한다”라고 털어놓기도 못할 만큼 일련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 어느 날 용기를 내 부모님을 공연에 초대했다. 공연을 마치고 ‘배우로서의 길을 걷겠노’라 밝혔고 부모님은 그의 결정에 동의를 했다고 한다. 현재는 지지를 받을 만큼 가장 든든한 팬이다. 그의 말에서 극예술 비전공자가 희극인으로 성장하는 성장통과 녹록지 않은 과정이 어렵듯이 느껴졌다.

그는 뮤지컬 ‘광주’에서 외대 진학을 목표로 재수하던 하동수 역을 맡았다. 작품에서 주변인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민주화운동에 뛰어드는 의협심 강한 청년을 연기했다. 그의 말은 최근 신군부의 쿠데타를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약 1300만 관객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맞물려 뜻깊게 다가왔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뮤지컬 ‘광주’에 출연했던 경험을 들려주는 황수빈 배우.

황 씨는 “뮤지컬 작품을 통해서나마 신군부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며 “다시는 그런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그는 2021년 모교인 동성중을 비롯해 빛고을시민문화관, 상무지구 일원 소극장 무대에 올



뮤지컬 광주 커튼콜에서 ‘투쟁가’ 리프라이즈 버전을 부르는 황수빈(왼쪽에서 두 번째).

라 공연을 펼쳐왔다.

황 씨는 “수년 전에는 뮤지컬 배우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늘의 저는 배우의 삶을 살고 있다”며 “살아가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한 게 없는 게 삶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인의 패기로 갑진년에는 더 많은 공

연에 도전할 계획”이라며 “뮤지컬과 배우 황수빈을 더 많이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수빈 배우가 출연하는 뮤지컬 ‘마리 퀴리’는 3월 2-3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내게도 희망을’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 24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장애를 딛고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일구는 작가들을 보면 그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 과정을 수행해내는 이들 에게선 열정 그 이상의 의미가 읽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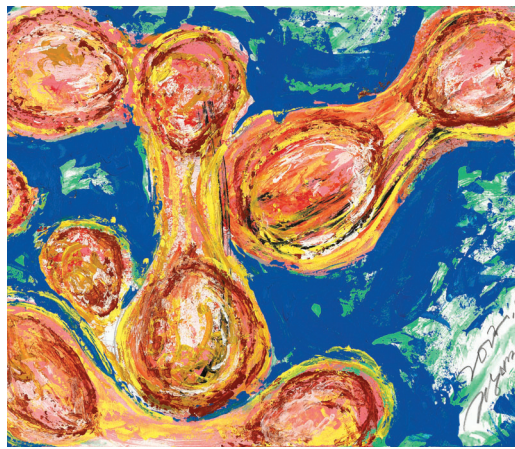
장애인 예술인과 중견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24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1, 2관)에서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회장 문경양)가 진행하는 ‘내게도 희망을 전’이다.

이번 전시는 장애인 작가 6명과 초대 작가 25명이 참여하며 초대 작가들 역시 모두 장애인 작가로 구성돼 있다.

발달장애인과 지적, 청각, 시각장애인이 1 대 1로 매칭돼 진행되며 교육 등을 통해 예술 역량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경양 회장은 “이번 전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23년 장애인예술단 창단 지원사업을 통해 기획된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최됐다”며 “4개월의 프로젝트 기간에 장애인미술인들과 기업들을 연결하는 활동을 하는데 두 사람당 한 작품씩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사업 도중 지난 12월 장애인예술가 3명이 대신정보 통신과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한국



장백산 작 '망공'



이혜선 작 'want'

문화예술원과 3명이 근로계약을 맺었다”며 “올 연말까지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시실에 만나는 작품들은 하나같이 신체의 장애는 예술활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백산의 ‘망공’은 거대한 에너지를 품은 이미지로 다가온다. 마치 거대한 땅콩이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기도 하다. 무한한 에너지가

축된 땅콩은 작가의 내면에 담긴 담대하면서도 희망적인 씨앗이 아닐까 싶다.

임지아 작가의 ‘노을’은 환상적이며 신비롭다. 석양이 지는 시간,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꽃밭 위로 쏟아지는 노을빛은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한다. 붉은 태양의 기운이 아스라이 펼쳐진 모습은 아련한 상념에 젖게 한다. 노을을 매개로 한 그림은 꽃과 같은 평안과 신비로움을 전달해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2년 광주북구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진행한 JS스트리 앙상블 연주회 모습. <JS스트리앙상블 제공>

동요부터 클래식까지...JS 스트링 앙상블 연주회

2월26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아이들의 떨리는 손끝에서 피어나는 현의 울림.

JS 스트링 앙상블(대표 박주양·앙상블)이 ‘JS 스트링 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2월 26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공연은 앙상블 소속 학생 단원들이 출연해 비발디와 바흐, 드보르작 등 각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가들의 곡으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바흐의 곡 ‘미뉴엣 3번’으로 막을 연다. 베버가 쓴 ‘사냥꾼의 합창’과 드보르작 ‘유모레스크’, 하이든의 ‘바이올린 협주곡 G장조’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G장조 K. 216’과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 35 1악장’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어지는 ‘사계 중 봄 Op. 8 1번’과 ‘2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

곡 A단조 Op. 3 no. 8, RV 522 1악장’은 비발디의 곡이다.

부담 없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곡들도 관객들을 만난다. 프랑스 민요이자 컨트리 송으로도 연주되는 ‘주먹 쥐고 손뼉 치고(Go Tell Aunt Rhody)’와 ‘나비 노래(Lightly Row)’는 아이들이 감상하기에도 좋다.

지휘는 전남대 음악학과, 독일 아헨국립음대를 졸업한 오인표가 맡는다. 전남대, 목포대, 광주대를 비롯해 광주예술중에서 강사를 역임했으며 각화청소년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정읍교육청 청소년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등을 역임했다.

박주양 대표는 “개인 독주, 협연, 앙상블 연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악 협주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아이들이 미세한 현의 떨림을 조율해 나가는 모습에서 아름다움, 열정 등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청년작가들 작품세계·방향성, 관객과 함께 모색한다

노은영·정덕용·조유나 작가 참여 24일 하정웅미술관 포트폴리오 발표

광주청년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방향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발표회가 열린다. 오는 24일 오후 2시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비평가와 함께하는 이번 ‘포트폴리오 발표 III’는 노은영, 정덕용, 조유나 작가가 참여하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의 ‘하이퍼이미지 시대의 미술’과 연계된 행사다. 양초롱 미술비평가가 참여해 작가들 작품세계를 모티브로 청중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김준기 관장은 “이번 행사는 광주 청년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가늠하고 미래 방향성 등을 관객들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라며 “관객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 많이 참석해 젊은 작가들의 창작활동 등을 격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양초롱 비평가는 그동안 현장 예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왔다. 프랑스 그르노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로젝트 기획은 물론 예술 생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



노은영 작가의 전시 풍경

해왔다.

노은영 작가는 일상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특한 세계를 표현해왔다. 일상의 다양한 모습들은 작가의 심미의식과 맞물려 발현된다. 작가는 인간이 발을 딛고 선 세상에 대한 관점과 사유 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경계에 대한 질문을 해왔다.

정덕용 작가는 현대사회를 ‘관념의 시대’로 규정한다. 주변화된 타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창작 활동은 후기구조주의 사상과 접맥되는 부분이다.

작가는 미셀 푸코처럼 결과론적 삶에 대해 끊임 없는 의구심을 던지는데, 이는 인간은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관점으로 수렴된다.

자화상을 모티브로 작업을 해온 조유나 작가는 사실적이 아닌 꿈과 상상에 기반한 창작을 펼쳐왔다. 특히 화려하면서도 장식적인 특징을 가미한 자화상 조각은 이미지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하이퍼리얼리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을 대변하기도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예위 ‘한밤의 낭독자들’ 24일 장항준 감독 진행

삶에 지쳐있는 청춘들을 책 속 문장으로 위로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360에서 선보이고 있는 ‘한밤의 낭독자들’이 오는 24일 밤 9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번 출연자는 ‘기억의 밤’, ‘열거적인 그녀’, ‘끝까지 간다’ 등 필모그래피로 이름을 알린 장항준 감독.

오는 4회에서 장 감독은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책 속 문장을 직접 소개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한국의 시의적인 문제 등을 다룬 김영하의 단편소설집 ‘오직 두 사람’을 텍스트로 진행한다.

출연 소감에서 장 감독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취향, 정서 등을 공유하는 과정은



장항준 감독

늘 따뜻하고 반가운 경험이다”며 “‘한밤의 낭독자들’이 모두를 연결하고 공감, 위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밤의 낭독자들’은 2월 최갑수 여행작가, 김중혁 소설가, 김겨울 작가(김유튜버) 등이 릴레이로 출

연할 예정이다. 지난 방송 다시 보기도 인문360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